

북아프리카 Berber의 삶과 복식 -Maghreb지역을 중심으로-

김문숙 · 김민수*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오산대학 의상디자인과*

I. 서 론

우리가 문명(civilization)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과 같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 미개인은 곧 '우리과 다른 사람'을 의미하게 된다. 아프리카가 비문명사회, 미개한 사회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유럽인의 인종 차별 의식과 민족적 우월감, 그리고 문화적 거만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똑같은 넓이와 높이의 안목으로 세계사를 보는 것이 정당하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의 역사는 아프리카의 어느 한 강 유역의 조그마한 지점에서 시작해 서로 의사소통의 영역을 넓혀 가면서 전 아프리카와 유럽 등 더 큰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상호 의사소통 지역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북아프리카 전체는 아랍 무역 경로와 연결되었다. 중세에 아랍은 북아프리카 해안을 지배했다. 그들은 고대의 이집트인, 카르타고인 그리고 로마인을 따르게 되었는데, 이때 물품만이 아닌 이념이 교환되었다.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원주민인 Berber는 이 지역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주변의 많은 민족들로 부터 사회 문화적, 종교적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지켜왔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북쪽지역인 Maghreb를 중심으로 이들 Berber의 삶과 복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북아프리카의 지역적 특성

1. 지리적 · 자연적 환경

세계에서 둘째로 거대한 대륙인 아프리카에는 광대한 사하라 사막이 있다. 이 사하라 사막은 북아프리카에서 시작하여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중앙 아시아까지 뻗어 있는 건조 지대의 연장선으로, 거대한 사막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꾸밈없고 장중한 사하라 사막의 모습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같은 온화한 지역에서 온 수많은 여행자와 방문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극심한 아열대 지역에 속한다. 오직 아프리카의 북부해안 만이 열기로부터 벗어나 있다.

2. 사회적·문화적 환경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관습과 신앙은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북아프리카인들은 감용하는 마술을 사용해 의식을 행하거나 모형을 만들어 개인, 동물, 물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마술을 통해 그 대상이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특별한 운명을 맞도록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3. 아랍지역의 교류 및 영향

1) 북아프리카와의 교류

현재 북아프리카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뛰어 넘어 이슬람과 아랍어권에 속한다. 아랍 세계(The Arab World)는 아라비아 반도 중심에서부터 북으로 이라크와 시리아까지 서부 북부아프리카의 모로코까지 걸쳐 있으며, 세계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다. 우리는 흔히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동시에 언급해 Middle East & North Africa라고 한다. 아랍 세계는 ‘中東(The Middle East)’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중동’이라는 의미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은 몇 가지 면에서 기후와 자연적 특성이 비슷하며, 또한 많은 문화적 특성 및 역사적 특성을 공유한다. 가장 잘 알려진 북 아프리카의 전통적 길옷은 지역마다 색상과 직물에서 매우 다양한 널찍한 두건 달린 외투가 있다. 클래식한 북아프리카인의 두건 달린 외투(burnous)는 크림색의 흰 양모 또는 어린 낙타의 털로 직조되는데 이것은 아라비아 의상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이슬람종교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무수한 종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00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아프리카에 걸쳐 유일하게 통일되는 요소는 이슬람의 신앙이다.

북아프리카는 문명의 상호교류에 있어 오랫동안 핵심적인 지역이었다. 아라비아 사막이 남부 아라비아와 아프리카를 중동의 ‘비옥한 초생달 지역’으로부터 훨씬 더 확실하게 단절시켰지만 이슬람이 들어오고 나서 북아프리카의 판도는 달라지게 되었다. 아랍인들의 매우 중요한 것은 아랍어의 사용에 있었으나,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된 이후로는 아랍인들에게 이슬람이 중요한 실체로 남게 되었다.

Ⅲ. 북아프리카 Maghreb와 Berber

1. Maghreb 지역의 특수성

북부 아프리카는 일련의 서로 다른 지역으로 나뉜다. 각 지역은 건조 지역에 의해 상대적으로 분리된다. 가장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을 마그립이라 부르는데, 이 명칭은 아랍어의 ‘해가 지는 땅, 서쪽’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Berber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흰 피부를 가진 종족으로 삶의 열정을 지닌 강한 의지의 종족이다. 그들은 남쪽이 사하라 사막에 의해 모두 둘러쳐진 Morocco, Algeria, Tunisia 그리고

Libya의 서부를 포함하는 'Maghreb'의 원래 거주민이다.

이슬람의 지배하에서 아랍인과 베르베르인들이 연합되어 마그립 사회의 민족적·문화적 요소를 구성했던 것처럼 수세기 동안 마그립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다.

아랍·이슬람 문명은 마그립 사람들의 삶속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핵심부분이 되었다. 베르베르인과 이주자들이 융합한 결과로 오늘날의 아랍 베르베르인 종족이 생겨나게 되었고, 아랍문화와 언어는 이 지역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마그립 역사는 아프리카 문화권과 연관지어 아랍 이슬람 문화권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2. Berber의 역사

북아프리카의 토착민 berber는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로 부터 시작된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고 자료가 빈약하지만 현재까지 알 수 있는 것은 베르베르족이 사냥을 했으며, 가끔은 농사를 지었을지라도 목축을 주로 하는 유목민이었다는 것이다.

베르베르인들은 스스로를 '자유로운 사람'이란 의미인 '이마지겐(Imazighen)'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자신들을 아마자기라 부른다. 베르베르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알아보려면 지도에서 t로 시작해서 t로 끝나는 지명을 찾으면 된다. 예를 들면, 탈신트, 타피랄드, 타구니트 등의 지명으로, 이것들은 모두 아틀라스 산맥의 남쪽에 있다. 이와 같은 이름의 형태는 모두 베르베르 방언의 공통점으로, 이것은 그들이 비록 고대의 리비아인들과 동일한 기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3. Berber의 생활방식

오래전 Berber는 동물들이 돌아다니고 농작물이 잘 자라는 비옥한 토양을 풍부하게 가졌었다. 이는 젓과 꿀의 땅이었으며, 8C와 11C 사이에, 그들을 내몰았던 아랍의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정복될 때까지, 자유롭게 살았다. 산으로 간 사람들은 농부로 정착했고 평야에서의 그들은 사막의 가장자리를 따라 뿔뿔이 흩어져 오아시스 주위를 돌아다니는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거친 기후에 적응했다.

정착농들은 돌로 만든 단층집에 살며, 계절마다 옮겨 다니는 유목민들은 흙으로 방어·저장용 요새를 만들고 양털로 된 천막에서 생활한다. 그릇을 만들거나 천을 짜는 등 가정의 생산활동은 여자들의 몫이다.

전통적으로 베르베르 족은 대부분의 이슬람교도들에 비해 여자들에게 많은 자유를 부여하여 베르베르 족 여인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다니며, 대부분 힘든 노동에 종사하며 남자들은 상업을 한다.

IV. Berber의 복식문화

1. Berber의 복식

전통적인 베르베르 정착지는 '크사르'라고 불리는 공동체로 요새화되어 있다. 시골에 사는 베르베르 남자들은 버누스라는 두건 같은 방토를 입는다. 여자들은 상당히 자유스러운 편이어서 남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아랍 여인들보다 자유롭다. 비록 관습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와 얼굴의 아랫부분을 가린다고는 해도, 아랍 여인들처럼 차도르로 온몸을 가리지는

않는다. 이들은 화장품으로, 헤나 잎에서 추출한 적갈색의 헤나 물감을 많이 사용한다. 베르베르어로 '평화의 전달자'라는 의미를 가진 헤나는 머리에 염색을 할 때 사용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질병을 낮게 하고 악령을 쫓는다고 믿고 있다.

Berber 여성은 결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아랍 여성들이 베일을 무겁게 드리우는 것과 달리, 그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었고, 일반적으로 보다 큰 자유를 누렸다.

그들은 항상 화려하게 옷을 입으며, 축제, 가족의 행사, 또는 들판을 경작하거나, 옥수수밭을 갈거나, 또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올 때, 많은 장신구를 착용하면서 큰 기쁨을 누린다.

2. Berber의 장신구

인간과 동물 형태의 묘사를 금하는 이슬람교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Berber는 그들의 장식적 디자인에서 신비한 힘을 갖게 되는 것으로 믿는 생물을 종종 그리고 있다. 이들 동물들의 힘은 고대 Berber 신앙에서 유래한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비록 동물 디자인이 상징으로 사용되면서 남아있지만, 그 의미는 잃어버렸다. 그러나 흉안(evil eye)에 대항하여 보호를 해주는 상징들은 계속 힘을 발휘해 왔고, 아직도 오늘날 만들어진 장신구류에 영감을 제공한다.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두려워했던 흉안은 응시나 눈짓이 나쁜 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특징의 사람들에 의해 계속되는 힘이다. 장신구류에 푸른 유리를 박아 끼우는 것은 'good eye'의 색을 나타내며, 눈의 모양을 생각나게 하는 Cowrie shell은 비슷한 보호를 위해 어린이의 목과 손목에 매어진다.

지나치게 장식하거나, 꾸미는 디자인을 사용하는 큰 도시의 아랍인들과 달리, Berber는 단순한 good taste를 위해 인상적인 장신구의 애호를 유지한다. 중세에 모로코 등지에서 금과 은이 공급되었고 장신구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Berber 여성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이며, 아랍인들처럼, 장신구의 형태로 부를 물려준다.

Berber는 유럽, 중동 그리고 서 아프리카와 풍부한 무역의 이점의 결과로써 대담한 호박 덩어리, 산호 토막 그리고 가공하지 않은 아마조나이트를 그들의 정교한 은 장신구에 혼합시켰다. Maghreb에서 장인은 수세기 동안 중세 유럽의 디자인으로 가는 줄세공, 에나멜 입히기(enamelling), 철보와 흑금(黑金)의 매우 세련된 디자인으로 매우 세련된 기법을 이행해 왔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북아프리카의 Maghreb 지역의 Berber를 중심으로 그들의 지리적·자연적·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생활 방식과 복식, 장식형태 등에 대해 알아 보았다.

사하라 사막 북쪽 아프리카의 Maghreb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연적 기후와 지정학적 위치가 부여하는 문명의 교류로 어떠한 문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었으며, 민족적 유대가 이슬람이 그 동안의 여러 종교의 영향 가운데서도 아랍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모체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종교의 힘을 새삼 느끼게 한다.

Berber는 아프리카의 토착민으로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한때는 그들만의 국가를 이루기도 했었고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다. 그리고 수많은 외세의 영향과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삶에 받아들이기도 했다.

Berber가 주변의 여러 영향 속에서도 그들만의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강인한 성격과 개방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슬람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북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풍습과 복식형태가 교류되었는데, 이로 인해 공통점들을 찾을 수 있겠으며, 이것은 이 두 지역이 갖는 지역적 유사성으로 인해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